진안군 탑사 관리인 군수로 변경…"종교탄압이다"

마이산 탑사 "산문폐쇄 불사"

마이산 탑사와 진안군이 문화재 관람료 배분문제 등을 놓고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진안군이 최근 탑사 관리인을 진안군수로 교체함에 따라 탑사측은 이를 종교탄압으로 규정하고 철회되지 않을 시 산문폐쇄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진안군(군수 임수진)은 탑사(주지 왕선)가 문화재관람료 배분약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최근 전북도 문화재위원회에 "마이산탑사 관리인 변경 신청"을 해 16일 전북 문화재위원회(1분과)는 마이산 탑사 관리인을 왕선스님으로부터 진안군수로 변경할 것을 의결하고 6월24일 왕선스님에게 이를 통고했다.

탑사측은 지난 82년부터 진안군측과 문화재관람료 징수와 배분에 관한 약정을 맺고 관람료 일부를 납부해 왔으나 임대료를 부과함이 적법하다는 전북도지사의 유권해석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에 따라 97년부터 관람료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 대신 진안군 소유로 되어있는 탑사내 부지 3백평에 관해서는 임대료를 내겠다는 입장이나 진안군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탑사 주지 왕선스님은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한 비용에 우선 사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관람료 배분 수입금을 군 잡수입으로 일반회계에 혼용함은 부당하며 더욱이 97년 예치금 폐지로 인해 관할 관청의 승인없이 자율화됨에 따라 배분에 관한 약정서도 불평등 계약으로 자연 폐기된 것"이라며 "법적으로나 관행으로나 부동산을 임대함에는 일정액의 임대료를 정해 지급함이 관례로 군소유 토지 300평에 대해 임대료를 내겠다는데도 군에서는 문화재 관람료 납부를 강요해 군의 잡수입으로 쓰려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또 "군에서는 천지탑이 있는 산 18번지 임야 약 300평 사용을 빌미로 관람료를 나누어 달라고 하는데 대법원의 판결(99. 11. 26)에 이갑룡이 탑을 쌓고 원시 취득하였다고 소유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마이산 경내에 태고종 탑사로 등기된 토지가 약 22000평, 본인 소유 토지도 수천 평이 있는데 군에서 사찰토지는 무상사용하는 반면 군 소유 300평에 대한 권리만을 주장하며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진안군수의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탑사 소속 종단인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은 탑사문제를 불교자주권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안군측에서 문화재관람료 배분 불이행을 이유로 탑사에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종교탄압"이라며 조만간 전북도지사를 항의 방문, 탑사 관리인변경 철회를 강력 요구하기로 했다.

왕선스님은 전북도가 지난 76년 마이산탑을 전북도기념물로 지정한 이래 마이산탑 관리자를 맡아왔으나 기독교신자로 알려진 임수진 현 진안군수가 95년 부임하면서 천지탑의 소유권 확인, 대웅전 철거소송, 예치금 사용 승인권, 관람료 지급의무부존재 확인 등 연이은 4건의 소송에 휘말렸고 탑사가 3건을 승소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사형제폐지 운동본부 추진

불교인권위, 준비위원장에 진관스님

불교인권위원회(공동위원장 진관스님등 3인)는 6월28일 2000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불교 사형제 폐지 운동본부'를 결성키로 하고, 준비위원장에 진관스님을 선임했다.

불교인권위는 이날 사형제 폐지운동, 양심수 석방운동, 70세 이상 고령자 석방운동, 소년수 교육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불교인권학교를 운영하는 한편 9개 지역불교인권위원회를 발족시키기로 결의했다. 불교인권위는 또 진관스님과 한상범 동국대 교수와 함께 일할 공동대표에 지원 문수암 주지를 추대하고, 불교인권위원회 10년사와 진관스님의 옥중서신 및 시집 발간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계 50여개 국가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된 가운데 국내에서는 서울구치소의 사형수 20명을 비롯 부산·대구·광주교도소에 사형수가 분산·수감되어 있으며, 현정부가 들어서서는 아직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불교인권위의 이번 사형제 폐지운동 추진은 천주교·개신교·원불교에 뒤이은 것이지만, 불교가 어느 종교보다 생명존중사상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그 파급효과는 적지 않을 전망이다.

"옥중(서울구치소)에서 사형수들의 눈물겨운 참회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형제 폐지운동을 발원하게 되었다"는 진관스님은 "진심으로 참회하는 인간에게 누구도 생명을 뺏을 권리가 없다"면서 불자들이 앞장서 사형제 폐지 운동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북 가족공동체 해체현상 심화"

좋은벗들, 탈북난민 대상

'북한 사회·경제 인식' 조사

탈북 난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온 좋은벗들(이사장 법륜)이 '북한주민의 북한 사회 경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조사' 결과를 6월29일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이것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식량난으로 국경을 넘어와 중국에 체류하는 북한 난민 중 19세 이상 성인남녀 10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식량난으로 사망과 행방불명을 경험한 북한 가정이 86%로 가족공동체 해체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응답자의 98.1%가 북한의 치안상태에 문제가 많다고 대답해 사회불안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북한 주민들은 장마당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100%), 식량난이 해결된 후에도 장마당이 존속되기를 원하다(100%)고 응답해 자유시장 경제제도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좋은벗들은 재중 30만 북한난민 문제 해결책으로 북한 정부에 △집단농장 주체농법 폐지 △장마당 전면 허용 △난민 처벌 금지 등을 요구했고, 아울러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북지원을 늘려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김두식 기자

자비의 도시락 '김 모락모락'

교계 20여곳 결식이웃돕기

3일 낮12시 광주시 북구 각화동 구석진 곳 가건물에 둥지를 틀고 있는 광주 맑고향기롭게. 달그락거리는 그릇소리가 창문새로 새어나오는가 싶더니 돼지고기 냄새가 진동을 한다.

광주 맑고향기롭게는 지난해 1월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워 끼니를 거르는 어린이와 독거노인들을 위해 매일 80여 명분의 도시락을 싸고 있다. IMF 체제 이후 결식이웃이 급증하자 광주 맑고향기롭게가 이웃사랑 실천에 나선 것.

도시락 이름은 '자비의 도시락'. 매일(월~금요일) 3~4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사무실에 딸린 3평 남짓한 부엌에서 만든 80여개의 도시락은 광주 서석초등학교와 관내 독거노인들의 가정에 배달된다.

서울 노원구 상계6동의 사천왕사도 매일 150개의 저녁식사용 도시락을 만들어 노원구뿐만 아니라 성북·강북·중랑구 결식아동에게 공급하고 있다.

또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매일 오징어전, 코다리찜 등 갖가지 밑반찬을 만들어 관내 30여 결식아동 가정에 배달한다.

이 밖에도 좋은일하는 사람들의 모임, 자비신행회, 낙동·구로·본동·냉림·한솔·인천 종합사회복지관 등 불교계 20여 곳에서 결식이웃돕기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도필선 기자

◇종교·시민단체 대표등 3천여명은 '온겨레 평화대행진'에서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발원했다.

7대종교 3천여명 '온겨레 평화대행진'

"미워하는 마음 버리고 화해"

정대 조계종총무원장을 비롯한 7대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강만길 민화협 상임의장 등 시민단체 대표와 회원 3천여명은 25일 서울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온겨레평화대행진을 갖고 "평화의 세상을 향해서 지난 역사를 떨쳐버리고 힘차게 달려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6.25전쟁 50주년 기념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경과보고와 대회사, 김대중 대통령 메시지, 추모사, 온겨레 평화선언 등의 1부 공식행사에 이어 '화해로 평화로 통일로'라는 주제 기념공연으로 이어졌다.

온겨레 평화대행진 상임대회장 정대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해서 온겨레가 하나되어 화해와 협력을 길로 나서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성재 정책기획수석이 대독한 메시지에서 "6월을 내일에의 희망으로 승화시키는 달로 만드는 데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한반도를 분단과 갈등의 지역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를 심는 희망의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내용의 '온겨레 평화선언'을 채택하고, △전쟁피해 어린이돕기 △18세미만 군입대 반대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평화의 새시대를 향한 온겨레의 염원과 희망을 1만8624개의 오색 풍선에 담아 하늘로 날리며 대미를 장식했다. 1만8624란 숫자는 6.25전쟁 발발 이후 이날까지의 일수이다.

이날 행사에 불교계에서는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스님, 진각종 성초 통리원장,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총지화 총지종 통리원장, 조계종총무원 총무부장 원택스님, 8백여명의 한마음선원 신도 등이 참석했다. 정성운 기자

목탁소리

태고스님이 빠졌다

이 경 숙 〈취재1부 부장〉

문화관광부가 일찌감치 내년도 문화인물을 발표했다. 문화인물중에 보조국사 지눌스님과 대각국사 의천스님이 들어있다. 지난 98년 문화인물에는 불교관련 인물이 하나도 없었고, 보통 문화인물을 선정할 때 스님은 1명 정도 들어가던 관례를 볼 때 이번엔 스님이 두 분씩이나 되고, 더구나 한국 최대 종단인 조계종의 종조격인 보조국사 지눌스님과 천태종 종조인 의천스님이 같이 들어 있어 반갑기 그지없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태고 보우스님 때문이다. 태고 보우스님(1301~1382)은 한국의 장자 종단과 제2 종단인 조계종과 태고종의 종헌에 거론되는 우리 불교사에서 아주 중요한 스님이다. 태고종은 종단 이름조차도 태고스님에게서 나온 것이며 한국의 스님중 태고스님의 문손이 아닌 스님이 없다 할 정도로 태고 스님이 불교사에 끼친 영향은 혁혁하다. 내년 2001년은 스님께서 탄생하신 지 꼭 700주년이 된다.

탄신 700주년이란 의미깊은 해를 맞아 '문화인물'로 모시어 국민 모두가 스님을 기리는 계기를 삼았으면 좋았을 뻔 했다.

물론 '문화인물'로 안 되었다고 해서 태고스님을 기리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문화관련 일을 총괄하는 문화관광부·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불교계가 공동으로 스님을 재조명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불자들은 물론 태고스님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까지도 스님에 대해 알게 하고 흠모케 하는 계기를 만들 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다.

내년 탄신 700주년을 맞아 태고 보우 라는 큰 봉우리에 걸맞는 알찬 행사가 준비되었으면 한다. 종단들이 연합으로 다례식, 학술세미나 등은 물론 일반에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친근하게 알릴 수 있는 문화행사가 다양하게 준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뉴스 & 뉴스

구민체육센터 반환소송

양천구청이 조계종을 상대로 반환을 요구했던 양천구민체육센터에 대해 6월16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수탁재산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양천구청이 퇴역 공무원들의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에 체육센터를 반환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김두식 기자

자원활동가 양성 워크숍

(사)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가 자원활동가 또는 희망자, 생명나눔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7월 8일부터 9일까지 경주 콩코드호텔에서 '자원활동가 양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입제식을 시작으로 본 행사에 들어가는 이번 워크숍은 △국민건강 예방과 민간단체의 역할 △의학발전과 해부학의 조건 △생명나눔운동의 상담기법 등 다양한 강의와 장기기증운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토론과 명상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김두식 기자

두송복지관 ISO9001 인증

두송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현)이 지난달 27일 국내 사회복지분야로서는 처음으로 ISO9001 인증을 획득했다.

ISO9001(품질경영시스템규격)은 제품설계 개발에서부터 제조, 설비, 서비스에 이르는 품질보증체제로, 두송복지관은 ISO9000 인증기관인 영국 NQA(National Quality Assurance)에 인증을 신청해 경영책임, 문서관리 및 자료관리, 교육훈련, 부가서비스 등 20개 항목에 걸친 심사기준을 통과했다.

김두식 기자

전등사서 고려 궁궐터 발견

강화 전등사 경내에서 문헌기록으로만 남아있던 고려의 강화도읍시절 임시 궁궐터가 최초로 발견됐다.

이형구 선문대 역사학과 교수는 99년 7~8월 인천시 강화군 전등사 경내를 지표조사한 결과 정면 32m, 측면 10m의 대규모 건물터를 발견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6월26일 발표했다. 이 교수는 이 건물터가 고려가 강화로 수도를 옮긴 고종 46년(1259) 4월 삼랑성에 지었다고 〈고려사〉에 기록된 임시 궁궐터라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압수문화재 31점 사찰 반환

문화재청은 지난달 28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압수문화재 61건 152점 가운데 정확한 소유주가 밝혀지지 않은 54건 121점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영주 흑석사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확인된 감지은니묘법연화경 권4 등 7건 31점의 문화재는 해당사찰에 반환한다. 권형진 기자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 高養山 야생 참 인진쑥 엑기스

고양산 야생 참 인진쑥 엑기스는?

야생참 인진쑥 자연산(茵蔯蒿)는 깊은 산속에서 수년~수십년간 자라면서 한겨울 눈덤이 속에서도 파란잎과 줄기를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철쑥을 말합니다. 구생복지원 임행스님은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 고양산속에서 자라는 야생 참인진쑥(茵蔯蒿)을 3년동안 채취하고 고양산 자락에서 5년이상 자란 황기, 당귀, 자연산 복분자(산딸기)등 8종의 약초를 가미해 보사부에서 정식 허가(정선 제1-3호)를 받아서 현대식시설을 이용 위생적으로 추출 가공한 건강식품이므로 승려로서 자신있게 권해드리오니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다함께성불하십시다.

지금까지 시중에 유통된 일반적인 인진쑥과는 다릅니다.

구생복지원 강암행스님

공급가격 - 2개월분 ₩175,000

우체국 010108-0179782 강종무

은행신용카드 18개월 분할 가능

각종 암과 불치병 예방이나 치료에 특효라는 자연산 상황버섯, 기간지천식·홍역기침에 특효라는 가래엿, 관절·골다공증·골절에 쓰이는 토종홍화씨 등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십시요.

순수익이금은 (전액) 복지사업에 쓰여집니다.

체질에 관계없이 남자, 여자, 노인분들, 임산부, 노약자, 입원환자 등 모두에게 좋습니다.

1. 간이 나쁜사람.
2. 항상 피로한 사람.
3. 위장이 나쁜사람.
4. 변비가 있는 사람.
5. 고혈압, 저혈압.
6. 정력 회춘에 좋습니다.
7. 생리통, 생리불순.
8. 냉대하, 신경통.
9. 당뇨, 황달.
10. 불면증 입원환자.

※ 남은 여생을 산과 물좋은 곳에서 황토방 생활을 하고 싶은 분은 연락주세요.

☎주 문 처 080-988-4774 ☎소비자상담실 0398-563-47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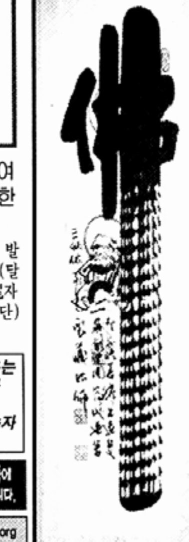
인터넷 http: //www.yasenginjinssook.co.kr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용린佛字체'

"오복을 가져오는 새천년시대 용의 꿈을 꾸세요~."



♧ 꼭 소장하여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 신기·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그림, 龍자 그림(수맥과 차단) 특별보시!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대한민국 미술작품 화랑방 (korea art gallery) http://www.korea-art-gallery.org http://www.mahamall.co.kr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02)2242-0331, FAX (02)2242-0255 E-mail :unjang21@ kornet21. net

●주문 신청방법 서울은행 28707-0452510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티벳 불교의 정화 "깔라차크라" 의식 참관

히말라야 성지 순례

명상여행

히말라야의 오지 해발 4,200미터 산중에서 달라이 라마를 직접 만난다. 히말라야 성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갠지스강의 시원(始原)까지 찾아간다.

■ 히말라야 명상여행단 모집 (선착순 25명 마감)

일 정 : 8월 3일 ~ 8월 25일 (22박 23일)

참가비 : 299만원 (비자요금, 공항세 별도)

주 관 : 인도로 가는 길 02-723-0333

신청 및 문의 : 정신세계원 02-747-7033 (담당 황길재 019-464-7033)

▶일급 호텔 숙식, 전세버스, 전용텐트, 요리사 대동

연락 주시면 자세한 일정이 담긴 정신세계 회원지 "나의 정신세계"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히말라야 성지 순례 여행 무료 설명회

■일 시 : 1차 7월 6일(목) 오후 2시 / 2차 7월 8일(토) 오후 7시

■장 소 : 정신세계원 (02-747-7033) 안국역 3번 출구, 비원 옆길로 300미터

정신세계원 (02)747~7033 서울 종로구 원서동 원서빌딩

公 告

부산 사하구 괴정동 소재 은암정사의 양영수(지온)이 관장하는 종단(무량종)과는 불기2544(2000)년 양력 5월 23일자로 결별하였으므로 본인(이령관)과 본종단(무량본종)과는 무관함을 공고함.

불기 2544년 6월 1일

서울 종로구 홍지동 76-2

대한불교 무량본종

총무원장 이령관

☎ 02)3216-1600

Fax 02)3217-1600